

이해인, 4대륙선수권대회 피겨 우승 … 김연아 이후 14년 만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세화여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싱글 선수가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김연아(은퇴) 이후 14년 만이다.

이해인은 지난 10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음악에 맞춰 클린 연기를 선보였다.

이해인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4.96점, 예술점수(PCS) 66.75점, 합계 141.71점으로 시즌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9.13점으로 6위에 올랐던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더한 총점에서 210.84점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해인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활짝 웃고 있다. 사진=AFP

이해인이 ISU 주관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인은 지난해에는 같은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여자싱글 선수의 4대륙 선수권 우승은 2009년 김연아 이후 처음이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한 김예림(단국대)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쇼트 프로그램 1위(72.84점)에 올랐던 김예림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8.95점,

예술점수(PCS) 67.50점으로 136.45점을 획득해 총점 209.2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동메달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함께 출전한 김채연(수리고)은 총점 202.39점으로 4위에 올랐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아시아·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 유럽을 제외한 4개 대륙 선수들이 출전하는 메이저 대회이다.

MLB, 연장 승부치기 영구 도입 … 야수 등판 기준은 강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연장전 승부치기 제도가 사실상 영구화될 전망이다.

14일 'MHN스포츠'에 따르면 'AP통신'과 'ESPN' 등은 전날 "MLB 사무국과 미국프로야구선수노조(MLBPA)가 만든 공동경쟁위원회는 정규시즌 연장전을 무사 2루에서 시작하는 규칙을 영구화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연장전 승부치기를 임시 도입했다. 이후에도 계속됐던 연장전 승부치기는 그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정규시즌에 국한된다.

승부치기는 정규이닝 내에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경우

연장전에서 빠른 득점을 유도해 경기 소요 시간을 줄이고 투수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위원회는 야수의 마운드 등판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지고 있는 팀은 8점 차 이상으로 끌려갈 때, 이기고 있는 팀은 9회 10점 차 이상으로 앞서는 상황에서만 야수를 투수로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전에서는 점수 차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기준에는 양 팀 점수 차가 6점 이상이면 야수의 마운드 등판이 가능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공동경쟁위원회는 지난해 3월 메이저리그 노사가 새 노사협약에 합의한 뒤 창설된 회의의 기구이며, 사측 6명, 선수측 4명 심판측 1명으로 구성됐다.

LPGA투어, 컷 통과자 축소 빠른 경기 진행 위해



▲ 스테이시 루이스 LPGA 선수 이사. 사진=joins.com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빈손으로 귀가하는 선수가 늘어나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PGA투어는 전날, 컷 통과 기준을 종전 2라운드 공동 70위 이내에서 공동 65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3월 24일 개막하는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부터 적용한다. 컷이 없거나 출전 선수가 제한된 대회, 그리고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US여자오픈 등은 예외다. 컷 통과 선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컷 탈락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LPGA투어가 컷 통과 선수를 줄인 이유는 현재 경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안팎의 비판 때문이다. LPGA투어 대회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 토니 타미 탕티파이분타나는 "3라운드부터 선수 숫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더 빠른 경기 속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컷 통과자 기준 변경에는 선수 이사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루이스는 LPGA투어 대회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루이스는 2020년 스코티시여자오픈 공식 기자회견에서 "골프 경기가 온종일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선수들이 더 빠르게 경기하도록 이사회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